

일타 대율사의 계율 선양 활동*

정서봉(서봉)**

• 목 차 •

- I. 서론
- II. 통합종단의 출범과 계단법 재개정의 역할
- III. 해인총림 울원과 율학인 양성
- IV. 『수계의법』의 번역과 수계의식의 일상화
- V. 포살낭송본의 번역과 포살의 대중화
- VI. 결론

* 이 논문은 2019년 10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대한불교조계종 계단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율장연구회에서 주최한 제6회 계율 토론회(대주제 : 계법의 확립 및 정착과 발전의 주역)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서실 사서실장, 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육 부장.

© 『大覺思想』 제39집 (2023년 6월), pp.109-144.

한글요약

본 고찰은 한국 현대불교사에서 율사로 널리 알려진 동곡당 일타의 계율사상 진작 활동을 정리한 논고이다. 일타가 율사로서 행한 업적, 의의, 성격 등은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학술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이에 이런 점을 인식한 필자는 일타의 계율 선양 활동을 몇 개의 주제로 대별하여 정리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계종의 통합종단(1962) 이후, 종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정리하였다. 그는 종회의원으로 계단법 제정, 승려 가사색의 결정 등을 주도하였다. 둘째, 해인총림 율원에서 활동 및 위상을 정리했다. 그는 해인율원을 출범케 하고, 그 책임자(율주)로 있으면서 후배 율사들을 양성하였다. 셋째, 『수계의범』을 비롯한 다양한 수계에 대한 책을 번역, 보급하여 종단의 수계의식을 일상화시켰다. 넷째, 포살 낭송본을 번역하고 보급하여 포살의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승단의 참회, 성찰의식을 고양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한 이 고찰이 일타, 해인총림, 율원, 수계의식 등에 대한 연구에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일타, 율원, 해인사, 계단법, 수계의식, 율사

I. 서론

고대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한 이래 한국불교는 우리 민족의 흥망과 고락을 함께 하였다. 일제하 민족 수난의 식민지 시기에 출생하여 쇠잔해 가는 한국불교의 종통과 전등의 전통수행 가풍을 호지하고 혼미한 계율 전통을 다시금 홍천(弘闡)하고 율풍(律風)을 진작한 대율사가 있었으니 그는 동곡당(東谷堂) 일타대종사(日陀大宗師)이다.¹⁾

1953년 통도사 천화율원(千華律院)²⁾에서 함께 수학하며 율장을 연찬하였고, 해인사와 중단의 대소사에 함께 하며, 특히 자운(慈雲)을 좌우로 보좌하며 계율 선양과 계단(戒壇) 발전에 손발을 맞추었던 가산지관(伽山智冠)은 자신이 찬술한 일타의 비액(碑額)을 “전지조인통달삼장광화중생동곡당일타대종사비명(傳持祖印通達三藏廣化衆生東谷堂日陀大宗師碑銘)”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는 비석의 주인공인 일타의 삶의 행리처를 절제된 언어로 표현한 것이다.

우선 그의 비문에서 주목할 점을 제시한다. 우선 전지조인(傳持祖印)이라 한 것은 1954년 오대산 서대(西臺)에서 생식(生食)과 장좌불와(長坐不臥)의 정진과 연이은 중대(中臺)에서 칠일간의 삼천배 기도 후 서원계(誓願偈)를 읊고, 오른손 열두 마디를 연지연향(燃指燃香)하고 은행(銀杏) 크기의 사리 팔과(八顆)가 출현한 서상(瑞相)을 입은 것과 1956년 태백산 도솔암에서 오후불식과 장좌불와로 6년간 결사하던 중 홀연히 돈오(頓悟)하고 오도송을 읊은 일을 말한 것이다. 통달삼장(通達三藏)이

1) 1929년에 9월 2일(음력 8월 1일) 오시(午時)에 출생하여 1999년 11월 29일(음력 10월 22일) 오후 8시 39분에 입적했다. 스님의 휘(諱)는 일타(日陀), 호는 동곡(東谷), 속성은 김씨(金氏), 본관(本貫)은 연안(延安), 속명(俗名)은 사의(思義)이다.

2) 천화율원은 남산(南山) 율종(律宗)의 일맥인 삼매적광율사(三昧寂光律師)가 보화산(寶華山) 융창사(隆昌寺)에 설치한 천화율원을 자운이 흠모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김광식, 「조계종단 律院의 역사와 성격」, 『불교학보』 70, p.212의 각주 29).

라 한 것은 총명과 기질이 뛰어나 일문천오(一聞千悟)하는 영민한 재능이 있었고 만물의 섭리에 계합하고 사리에 어긋남이 없고,³⁾ 영민한 경안(經眼)으로 삼장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갖추었음을 말한 것이며, 광화중생(廣化衆生)이라 한 것은 종설겸통(宗說兼通)한 현하(懸河)의 변설(辨說)로 많은 국민을 교화한⁴⁾ 것을 말한 것이다. 지관은 그 비문에서 법성을 요달(了達)한 선지식으로, 천진불의 자안(慈顏)을 갖춘 관음의 모습과 대비원력으로 교화중생한 보현행의 실천자, 대자유인으로서 일타의 삶을 요약하였다.⁵⁾

이와 같이 걸출한 일생을 용맹정진한 일타는 정화 이후 한국불교 현대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특히 계단 발전과 계율중흥에 기여와 역할은 간과할 수 없는 대율사의 행적이다. 최근 정화세대의 원로들이 모두 입적하고, 그다음의 세대들 또한 입적하면서 인물 중심의 근현대 불교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근현대 계단사와 계율연구에 있어 중요한 인물이 일타이기에 그에 대한 연구는 학술적 가치가 지대하다.

일타는 통합종단의 출범 이후 자운율사의 뜻을 받들어 구체적 기획과 실행 계획을 세워 계단법 재개정에 깊이 관여하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이에 대한 연구는 중앙종회 회의록을 중심으로 고찰하겠다. 일타는 해인총림의 개설과 더불어 총림과 울원의 울주의 소임을 보며 율학인 양성에 진력하였고 조계종의 행해율의 기본이 되는 「위의작법초」

3) 동곡문도회 편, 『일타대종사법어집』, 가야산해인사지족암, p.598.

4) 동곡문도회 편, 『일타대종사법어집 日陀大宗師法語集』, 가야산해인사지족암, p.600.

5) 동곡문도회 편, 『日陀大宗師法語集』, 가야산해인사 지족암, p.597. 萬物이眞如本性에서 비롯되어 流轉하나 法性を 벗어나지 않았고 諸法의 本源을 萬有가 具足하여 昭昭靈靈함을 現前하는 것은 法성이 그대로 天真佛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 法性の 根源을 깨달아 智慧와 慈悲로 世上을 救援하고 衆生을 제도하신 분이 世尊이시고 證得의 길을 열어 覺圓滿의 地位에 올라 우주법계에 걸림 없는 자유인이 되신 분이 東谷堂 日陀大宗師이다.

(威儀作法抄)를 편저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일타는 한문으로 된 『수계의범』을 번역하여 수계의식을 보편화 시켰고, 비구계·비구니계·범망경보살계의 포살 낭송본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지율지계를 일상화 시켰다. 이와 같은 일타의 계율정신의 선양 활동 및 성격에 대해 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 통해 일타 대율사의 계율선양에 대한 개요를 살필 수 있다고 본다. 미진한 연구는 지속적인 탐구, 분석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II. 통합종단의 출범과 계단법 재개정의 역할

통합종단 이후 초대 중앙종회는 1962년 8월 2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비구 대처간의 분규를 해소하고 화동단합(和同團合)을 위한 개원식을 갖게 된다. 1962년 12월 29일 제1대 종회의 제2회 임시회의에서 양청우, 정전강, 송홍근, 김환봉, 김자운, 김지월, 김탄허, 김법룡, 이우화, 허안락, 최원허, 윤고암의 사표를 수리하고 보선의원으로 윤월하, 김일타, 장희찬, 박추담, 이법연, 소구산, 김상호, 노상현, 김대월, 이운송, 조일파, 최원중 등을 보선의원으로 선출하였다. 일타는 이때부터 보선의원으로 종회의원 활동을 시작하였고 1964년도 각 상임분과위원회가 구성될 때에는 교화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일타는 보선으로 선출된 제2회 이후 전체 제13회 회기 중 제4회를 제외하고 활발하게 출석하며 정책 활동을 하였다.

제1대 종회의 제1회 임시 중앙종회 회의에서 의장인 박벽안은 김자운의 ‘제7조(계단의 위치)에 대한 주장을 통과시켰다. 그는 계단 사찰로 통도사, 송광사, 법주사, 월정사 4개 사찰이 정해 있으나 통도사는 계단 시설이 되어 있지만, 그 외 3개 사찰은 시설이 없고 보니 당분간 설비

될 때까지 보류토록 함'을 동의 제청하고 계단법을 통과하고 선포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계단 역사와 관련하여 중요 법안이 상정 의결되었는데 고시위원회법 제정의 건(1962년 8월 27일 통과), 의제법 제정의 건(1962년. 8. 28일 통과), 계단법 제정의건(1962년 8월 27일 통과), 승니자격 심사 특별법 제정의 건(1962년 8월 28일 통과), 의제법 제정의 건(1962년 8월 28일 통과), 장로추대 및 전계화상 선출의 건(1962년 8월 28일 통과)⁶⁾ 등이다. 장로에는 하동산, 국묵담을 전계화상에는 서종수를 선출하여 계단 발전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일타올사는 제1대 중앙총회의원이 되기 이전에 1962년 2월 새 종단 출범에 필요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는 '조계종 정화대책 중앙비상총회'(일종의 제헌의회)의 울장부문 총회의원으로 이미 참여했다. 거기서 새 종헌 기초 작업과 종단 운영초기에 필요한 '승니자격 심사법' '계단법' '고시위원회법' '의제법' 등의 중법들을 기초하는 작업을 했다. 특히 종헌 9조에 나오는 '승려의 정의와 자격'의 부분이나, '승니자격 심사법' '계단법' '고시위원회법' '의제법' 등은 울장 전문가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일타올사의 역할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⁷⁾

1966년 8월 11일에 개최한 제13회 임시 중앙총회에서는 가사색채 변경의 건(1966년 8월 11일 통과)이 의결되었는데 김자운의 가사색채 대한 장시간의 설명에 가사색채는 주황색으로 변경하기로 이진용 의원의 동의와 김일타 의원의 제청으로 결의되었다. 또한 김일타는 “긴급동의다. 가사에 대한 문제다. 울제에 여법하게 하기 위하여는 가사 전면 폭을 접는 것을 약하여 짧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⁸⁾고 제안하여 김혜정 의원의 동의와 박백안 의원의 제청으로 통과시켰다.

일타는 제1대 보선 총회의원을 시작으로 1966년 12월, 제2대⁹⁾ 총회의

6) 『제1대 중앙총회회의록』 p.38.

7)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국 일타스님』, 2016년 추계 전국불교학술대회, 한국불교학회, p.242.

8) 『제1대 중앙총회 회의록』 p.451.

원으로 선출되었고 법규분과위원회에서 위원장 김서운, 위원 오낙원, 배도원, 송월주 등과 활동을 하였다. 그는 제14회부터 제21회¹⁰⁾까지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등 중단 발전에 성실하게 의원의 직무를 수행하였고, 1969년 12월 3일 제22회 정기총회에서 사표를 제출하여 수리되었다.

제15회 임시중앙총회¹¹⁾에서 「중단기강 확립의 건」(1967년 3월 15일 통과)¹²⁾에서 해인사 가사 불사에 대하여 총회 결의대로 시행토록 총무원에서 해인사에 경고장을 발송토록 하였다.

김일타의원 : 기강 확립에 있어서 먼저 수계제도를 중법에 의하여 여법히 시행해 주어야 했고, 가사색에 있어서도 전반 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지정색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겠다.

진홍법의원 : 요사이 감찰위원회에서 제적 및 체탈도첩의 징계를 받은 자가 공공연히 대중처소에 활보를 하고 다니는데, 징계받은 자에 대한 조치를 중법에 의하여 강력히 시행해 주지 않으면 중단의 기강은 설 수가 없다고 본다.

김일타의원 : 현재 해인사에서 가사불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색이 전반 총회에서 결의한 것과는 판이하다. 그러하니 총무원 당국에서는 시정하도록 경고장을 내줄 것을 동의한다.

송월주의원 : 동의에 재청한다.¹³⁾

제16회 임시 중앙총회¹⁴⁾는 해인사에서 개최하여 「의제 및 가사색채(괴색) 통일에 관한 건」(1967년 7월 27일 통과)¹⁵⁾을 의결하였는데 당시

9) 제2대 중앙총회의 의장은 박백안, 수석부의장은 문정영, 차석부의장은 조용명이었다.

10) 제2대 중앙총회는 총 23회의 회기를 가졌다.

11) 1967년 3월 13일 개회, 3월 15일 폐회, 총무원 회의실.

12) 『제2대 중앙총회 회의록』 p.62.

13) 『제2대 중앙총회회의록』 p.72

14) 1967년 7월 25일 개회, 7월 27일 폐회, 해인사.

통일가사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의 장 : 가사색채 통일에 관해서 말하라.

김자운의원 : 가사색을 통일하려면 돈이 있어야 한다. 공장에서 통일된 가사를 제조하고 현재 수하는 가사를 전부 압수하기 전에는 곤란하다고 본다.

김일타의원 : 가색 통일은 솟물이 제일 적합하다고 본다.

문정영의원 : 율문에 위배되지 않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색을 채택해야 한다.

의 장 : 조속한 시일 내 통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¹⁵⁾

제17회 정기중앙총회¹⁷⁾에서는 송월주의원의 발의로 의제연구위원회가 조직되었다. 위원은 이대휘, 김자운, 이청담, 이성철, 김일타가 추천되었고¹⁸⁾ 일타의 의제와 가사색채(괴색) 통일에 관한 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송월주의원 : 의제연구위원회를 조직해야 된다. 위원회에서 결정한 외에 가사를 착용하면 제적하기로 하고, 의장과 원장에 일임해서 율을 연구한 분 7명을 선출할 것을 동의한다.

이범행의원 : 동의에 재청한다.

(전원 무이)¹⁹⁾

제2대 제18회 임시중앙총회에서 「가사색채 통일에 관한 건」(1968년 8월 3일 통과)이 의결되었는데 의제위원회에서 정한 괴색으로 하되, 한 공장에 부탁하여 같은 색이 나오도록 해서 사용키로 결의하였다²⁰⁾.

15) 『제2대 중앙총회회의록』 p.88.

16) 『제2대 중앙총회회의록』 p.109.

17) 1967년 12월15일 개회, 12월17일 폐회, 총무원 회의실.

18) 『제2대 중앙총회회의록』 p.150.

19) 『제2대 중앙총회회의록』 p.149.

20) 『제2대 중앙총회회의록』 p.155.

- 의 장 : 의제위원 한 분이 와서 말해 주기 바란다.
(장로원장²¹⁾이 말세가 되면 오색가사가 나온다는 오지와 위제위원회에서 통과된 색체에 대하여 설명하다.)
- 의 장 : 피색으로 결정하자.
- 윤기원의원 : 의원의 의사를 물어보라.
- 조용명의원 : 66년도 중회 때 황갈색으로 결의하였는데 의제위원회에서 다시 피색이 나온 이유를 말하라.
- 장로원장 : 중회에서 결정했지만 그 후 실제 여러 색이 나와 다시 문제가 되었다.
- 김자운의원 : 한국 중회는 무가치하다. 가사색을 정해놓고 통일을 못시키고 불기연대도 정해 놓고 시행 안한다.
- 의 장 : 가사색은 꼭 통일시켜야 한다.
- 서상인의원 : 색체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통일하는 방법이 문제이다.
- 김혜공의원 : 피색은 좀 진하니 황갈색으로 하자.
- 박준용의원 : 66년도 중회에서 일단 정했으니 그대로 하자.
- 송월주의원 : 의제위원 의사가 통일될 것 같지 않으니 먼저 의제위원이 통일된 색체를 내놓으면 그대로 통과시켜 주기를 바란다.
- 장로원장 : 의제위원 5명중 김자운스님만 반대하고, 나머지 4명은 의사가 같다.
- 오녹원의원 : 지난 중회때 의제위원을 선정하여 이 문제를 연구 발표하기로 했으니 본 중회에서는 의제위원이 결정한 색이 합당하느냐 없느냐만 결정하면 되겠다.
- 김양택의원 : 색명도 없고 하필 분명치 않은 색을 선택할 것이 없으니 황갈색이 좋겠다.
- 조용명의원 : 색체는 한 공장에서 한시에 나와도 차이가 있으니 완전통일이란 어려운 문제이고, 대다수가 원한만큼 66년도에 결정한 색을 그대로 결정하면 좋겠다.
- 진홍법의원 : 남방불교와 통일하자고 정하여 조계사에서 가사불사한 색이 이번 의제위원회에서 정한 색이니 이색으로 결정하여 주기 바란다.
- 의 장 : 한 공장에 부탁하여 꼭 같은 색이 나오도록 책임지고, 의제위

21) 이청담(도선사)이다.

원회에서 결정한 색으로 통일하는데 이의 없느냐?
(전원 무이 통과)²²⁾

상기의 결의사항을 살펴보면 가사색에 대한 상당한 진통과 견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3대 중앙총회에²³⁾ 일타는 총회의원으로 다시 선출되어 법규분과위원회에서 의원 활동을 하였다. 제28회 임시 중앙총회에서²⁴⁾ 「계단법 개정의 건」이 논의 되었다. 사미계단을 단일화하여 중앙에서 수계 하고자 한 것으로 향후 출범할 단일계단으로 이어지는 시발점으로 상당한 의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사정상 여의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제36회 임시 중앙총회까지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의 장 : 사미계단을 중앙에서 단일화해야 한다는 계단법 개정에 대해 주무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송월주 교무부장이 계단법 개정안을 설명하니 다음과 같다.)

(부록철 유인물 참조)

유월탄의원 : 교무부의 사미계단 단일화 작업은 참으로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각 본사 또는 사암에서 무질서하게 사미계를 줌으로 해서 승려의 자질이 저하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사미계를 무질서하게 품수함은 비구의 우치 또는 중단 전체의 위신이 사회적으로 하락되는 점이 적지 않습니다. 중단의 위계를 세우는 방법으로 우선 이 사미계단을 단일화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 중략 ...

김일타의원 : 각 본사에서 수계는 하계하고 7월 15일 또는 1월15일, 1년에 한두 번씩 교육을 지정 장소에서 받게 하는 것은 모르나

22) 『제2대 중앙총회회의록』, p.164.

23) 제3대 중앙총회는 1970년 9월 23일에 개원하였는데, 의장은 박벽안, 수석부의장은 오녹원, 차석부의장은 채벽암이었다.

24) 1971년 12월 14~16일, 총무원 회의실.

각 본사에서 수계하는 것을 막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지관의원 : 본사에서 수계부터 하고 중앙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해도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수계한 자를 중앙에서 교육 또는 수행을 시켜서 그 성적이 나쁘다고 했을 때 승적을 아니하여 준다면 본사와 중앙과 행정적인 모순 내지는 알력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역시 법규위원회에 넘겨 검토해서 차기 총회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합시다.

의 장 : 이 사미 계단법 개정안은 법규위원회에 넘겨서 재검토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서 다시 다루도록 함이 어떻습니까?

(전원무이)²⁵⁾

제4대 중앙총회²⁶⁾에서 일타는 다시 총회의원으로 선출되어 3선 의원이 되었다. 제3대에 이어서 법규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75년 12월 4일 제42회 임시중앙총회에서 의원직을 사퇴하였다. 제44회 임시중앙총회에서 「계단법, 총림법 개정의 건」이 상정되어 개정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차기 총회로 이월되었다. 향후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이후 계단과 관련하여 논의된 사안은 제5대 중앙총회의 제60회 임시중앙총회에서 「통도사 계단 전계화상 추대의 건」(1980년 2월 2일 통과)이 의결되어 박청하를 통도사 금강계단 전계화상으로 추대하였는데 이것이 유일하였다.

일타는 제4대 중앙총회 개원식에 참석하고 사퇴하고서는 이후 중앙총회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시시비비를 싫어한 성격과 당시 종단의 각종 분류와 혼란상을 보면서 종단 일을 멀리서 걱정하는 시절을 보냈던 것 같다. 일타의 중앙총회의원 사퇴 이후 각 회기의 회의록을

25) 『제3대 중앙총회회의록』, p.183.

26) 제4대 중앙총회는 1974년 9월 24일 개원하였다. 의장은 박영암, 수석부의장은 김혜정, 차석부의장은 고광덕이었다.

살펴보면 계단에 관한 안건 상정이나 논의가 전무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당시의 종단 안팎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일타의 관심과 영향력이 지대했음을 반증한다 할 것이다.

일타는 10·27법난과 분규의 혼란을 수습하고 새롭게 구성된 제7대 중앙종회²⁷⁾에서 다시 종회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64회 임시중앙종회서 「분과위원회 및 각 위원회, 호계원장 선출의 건」(1981년 1월 19일 통과)이 의결되었는데 일타는 각 위원회의 법규위원회²⁸⁾ 위원으로 선출되었고, 호계위원회의²⁹⁾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82년 6월 2일 제72회 임시중앙종회³⁰⁾에서 계단사에서 의미 있는 결의가 있었다. 비구니 이부승(二部僧) 수계의식의 복원이다. 제72회 임시중앙종회는 개회, 삼귀의례, 의원 점명, 의원 선서, 개회사, 총무원장 인사, 전회의록 낭독, 경과보고에 이어 의장 오녹원이 원로위원인 자운스님이 계율과 관련하여 의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여 자운의 발언을 듣게 된다. 이부승 수계 제도가 입법과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간청한다. 이어서 일타의 계단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는데 상세한 설명과 이은 질의응답으로 그 당위성과 불교사적 가치를 역설하였다. 무엇보다 눈여겨 볼 것은 “지금 남방이나 북방이나 모두 2부승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남방에는 비구니계를 설하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통을 지켜야 할 곳은 우리나라뿐이고 조계종뿐인 것입니다.”이라는 발언이다. 일타는 이부승 수계제도의 복원이 불교사에서 한국불교가 차지하는 가치를 역설하고 있고, 이에 대한 상당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음을 또한 엿볼 수 있다.

27) 1981년 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개원. 의장은 김법전, 수석부의장은 정초우, 차석부의장은 서의현이었다.

28) 법규분과위원회와 무관한 각 위원회로 개정 중헌 제11장의 위원회를 말한다. 위원장은 고광덕, 위원은 박법정, 윤법흥, 김일타, 정초우 등이다.

29) 개정 중헌 제10장 호계위원회를 말한다.

30) 총무원 회의실에서 개회하였다.

의장오낙원 : 원로 자운스님께서 계율 문제로 의원스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다 하시니 듣도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일동 : 좋습니다.)

원로 김자운스님 : 비구니 수계시에 이부승 수계 제도가 되도록 입법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타스님께서 설명하겠으니 고유 율장에 의해 이 제도가 시행될 수 있기를 간청합니다.

김일타스님 : 지금 이에 대한 계단법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세계는 여자만이 잘 아는 것입니다. 율장 원칙으로 보면 비구니계는 비구니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체통을 세울 수가 없으므로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는 일단 비구니가 계를 설하고 이어 비구, 비구니가 합당한 자리에서 또다시 계를 받도록 하여 2부승 수계 제도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남방이나 북방이나 모두 2부승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남방에는 비구니계를 설하는 것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통을 지켜야 할 곳은 우리나라뿐이고 조계종뿐인 것입니다. 현재 중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통일계단 수계도 성공단계에 이르고 있으니 이부승 수계 제도도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제도화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비구니계를 받을때 비구니가 일단 주어 가지고 비구가 다시 주는 이부승제가 율장에 있는 것이니 율장에 따라 제도화하자는 것입니다.

의장오낙원 : 중회에서 십분 고려하여 법안화 되어 시행되도록 연구 검토함이 좋겠습니다.

김현해의원 : 계율에 관한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관스님이나 인환스님 등과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일타의원 : 모두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장오낙원 : 그러면 이 문제는 이따가 중법 개정안을 다룰 때 처리키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군법 사단에서 경과보고 할 것이 있다고 하니 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의원일동: 좋습니다.)³¹⁾

오후 14시 20분에 의장 오녹원은 속회를 선언하고 「1) 종헌·종법개정 의 건, 4) 계단법 개정의 건」을 상정하였다. 교무부장 이성타의 개정 취지의 설명과 안양국의원, 김혜법의원, 강석천의원 등의 비구니 3사 7중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질의와 교무부장 이성타와 발의자 김일타의원의 보충 설명이 이어진다. 의장 오녹원은 의원들이 이해가 충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원안대로 통과를 결의 선포하였다.

안양국의원 : 3사7증이 비구니스님 중에서 나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구스님 3사7증과 동등하게 대우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비구스님 3사7증과는 차별이 있게 대우를 할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부장 이성타 : 비구니스님 3사7증은 종단 전체에 통하는 3사7증이 아니고 사미니가 비구니 구족계를 받기 전에 예비적으로 비구니 3사7증으로부터 수계를 받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입니다. 종단적 차원의 3사7증이 아니고 예비수계를 받는데 국한된 3사7증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혜법의원 : 아까 일타스님이나 자운스님께서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사미니계를 수한 후에 비구니계를 받기 직전에 비구니스님과 비구스님이 합동으로 수계를 한다고 했는데 유인물에는 그 사항이 일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타의원 : 제1부는 비구니가 비구니의 조사를 다하여 상세한 조사를 하고 완성하여 그날로 비구스님들에게 와서 계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단법에 문안을 만들어 계율대로 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강석천의원 : 원칙에는 찬성합니다. 본인 교무부장 재직 시에도 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문안을 보건대 이대로 통과하면 나중에 다시 재수정하지 않으면 안 될 문안이 있으니 이 자리에서 수정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3사7증이 분한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자격이 설정되

31) 『제7대 중앙종회회의록』, p.599.

어 있지 않으니 이런 것이 명문화되고 보완되어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일타의원 : 여법 비구나 여법 비구니로서 10년 지계 청정자라야 전계사가 된다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여기에는 여법 비구니 3사7중 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으니 더 보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의장 오녹원 : 그러면 모두 이해가 가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원일동: 이의 없습니다.)

계단법 개정안(수정보완)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³²⁾

일타의 이러한 공헌에 의해 계단법은 큰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법은 1982년 6월 4일 공포되었다. 계단법은 최초 1962년 8월 26일에 제정 공포 이후, 2015년 11월 4일에 개정되고 11월 16일에 공포된 것까지 총 5회의 개정 공포가 이루어졌다. 현행 계단법 제3장 계단의 제10조에 “② 비구니 계단은 여법비구니, 삼사칠중(또는 삼사이중)을 선정하여 그들로 하여금 식차마나니에게 예비 수계케 하고 다음에 당일로 이부 대승 중 본소계단에서 본 수계를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만 18세 이상의 사미니는 식차마나니 6법계를 받아야 하며 6계를 받은 식차마나니라야 비구니 구족계에 응할 수 있다.”라고 하여 비구니 삼사칠중의 역할을 명시하였다. 이는 대승 불교권과 상좌부 불교권에서는 유일무이하며, 율장에 근거한 여법(如法)하고 여율(如律)한 계단을 확립한 것³³⁾으로 자운과 일타의 헌신과 원력에 기반한 것이다.

이부승 수계의식의 복원으로 제2회 단일계단의 초대 니화상(尼和尚)으로 정행(淨行 2회, 3~5회, 7~13회)이 위촉된 이후 인홍(仁弘 6회), 묘엄(妙嚴 14~15회, 29~31회), 광우(光雨 16회), 혜운(慧雲 17회) 태경(泰鏡 18~20회), 명성(明星 21~23회, 32~33회), 지원(知元 24~25회) 정훈(正訓

32) 『제7대 중앙총회회의록』, p.611.

33) 「해인총림 50년 근현대 결사운동과 율원」, 『해인총림개설50주년기념 자료집』, p.44.

26~28회), 묘관(妙觀 34~35회), 자민(慈珉 36~40회), 지형(志炯 41회) 등이 니화상으로 위촉되어 여법 여율한 수계의식이 봉행되고 있다.

Ⅲ. 해인총림 율원과 율학인 양성

일타는 일찍이 율(律)과 인연이 깊었다. 은사 고경법전(古鏡法典)은 통도사 금강계단의 전계사이다. 일타는 1934년 자운을 계사(戒師)로 사미계를 수지하였고, 1953년 3월부터 자운율사의 지도로 통도사 천화율원(千華律院)에서 석암혜수(昔岩慧秀), 가산지관(伽山智冠) 등과 함께 율장전서(律藏全書)를 연마하고 종단의 승강(僧綱) 확립과 불법중흥을 서원하였다.³⁴⁾

일타는 자운과의 이러한 인연으로 율원과는 운명과 같은 인연을 맺게 되었다. 1960년 자운이 해인사 주지로 부임하면서 1961년 일타를 초청해 하안거부터 3일간 산중습의와 계율에 관한 강의를 하게 하였다. 일타가 시작한 산중습의의 전통은 매년 동안거와 하안거 결제일 다음 날에 해인사의 산내 선원, 율학승가대학원, 승가대학교, 종무소 소임자 등의 전 대중이 함께 모여 반듯이 시행하고 있고, 그 책무는 당해 율주와 대학원장이 전승하여 현재에도 잘 계승되어 해인사만의 고유한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

일타는 이때 강의 초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리하여 향후 『사미율의』의³⁵⁾ 부록에 「위의작법초」(威儀作法抄)를 실게 된다. 「위의작법초」는 무량중수선사의 일용소청규를 태본(台本)으로 하고 백장청규(百丈清規),

34) 동곡문도회편, 『일타대종사법어집』, 가야산해인사지족암, p.599.

35) 日陀가 편역한 것이다. 雲棲大師의 原文에 대하여 明나라 홍찬(弘贊)이 지은 중주(增註)와 청(淸)의 서옥(書玉)이 엮은 述義中 緊要한 것만 抄集하여 各各 冊을 달고 耘虛스님의 翻譯本과 合編한 것으로 校閱은 통도사 벽안이 하여 1968년 초판 발행하였다.

선문일송(禪門日誦), 이과합해(二果合解), 선학사전, 비니일용(毘尼日用) 등을 참조하였으며 기타 미상(未詳)한 곳은 중앙종회에서 여러 대덕스님들과 의정(議定)하였던 것이다³⁶⁾.

「위의작법초」는 행자교육원의 습의교안³⁷⁾의 저본으로 조계종 승려의 일상위의의 정범(正範)으로 현재도 각종습의 기본 텍스트로 활용되고 있다. 「위의작법초」는 먼저 일용의식으로 합장법, 예배법, 반배법, 고두(叩頭), 차수법, 문출입법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식당작법을 설명하였는데 상발하발(上鉢下鉢), 전발법(展鉢法), 진지(進旨), 봉발법(捧鉢法), 출생반(出生飯), 공양수(供養受), 세발(洗鉢), 절발수(折鉢水), 수발법(收鉢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일타의 사미율의 편저본은 종단 『초발심자경문』과 더불어 사미교육의 기본 교재로서 활용되어 왔다. 그리고 현행 행자교육원의 번역본 『사미율의』의 저본이기도 하다. 일타는 이 책의 편자서(編者緒)에서 책 출간의 바램을 아래와 같이 상술하고 있다.

一 . 이 책이 나와서 현재 우리 불교계에 가장 급선무인 도제교육과 승풍의 기강, 이것을 걱정하는 여러 큰 스님네에게 다소라도 참고 거리가 되고 따라서 초학 사미들의 학습과 그 진도 進道에 도움이 된다면 편자의 바램은 그 위에 더 없겠다.

일타는 1965년 4월 해인사 율사(律師)의 소임을 맡아 대중의 규율(規律)과 승강(僧綱) 확립을 지도하였다. 1967년 해인총림이 개설되면서 초대 율주(律主)에 위촉되어 총림대중의 승행(僧行)을 계도 하였고, 1977년 총림에 통합종단 이후 최초의 율원을 정식으로 개원하여 율학인(律學人) 양성에 진력하였다.³⁸⁾

36) 일타스님, 『사미율의』, 삼영출판사, 1968. p.210.

37)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에서 2011년 초판 하였다.

38) 「해인총림 50년 근현대 결사운동과 율원」, 『해인총림개설50주년기념 자

율원(律院)에 대한 문헌기록은 『송고승전』 권(卷) 십오(十五) 당(唐) 원조(圓照) 조(條)와 『칙수백장청규』(勅修百丈淸規) 권하(卷下) 양억(楊億)의 고청규(古淸規) 서(序)에 나온다. 율원은 율사(律寺)와 같은 말로 지율(持律)이 엄정(嚴淨)하고 근수(勤修)하는 자가 머무르는 사원을 말한다. 송대(宋代) 이후 선(禪), 교(敎), 율(律)의 종파(宗派)가 병립(竝立)하면서 사원을 선, 교, 율로 나누었는데 율(律)에 소속(所屬)되면 율사(律寺)라 명칭(名稱)하고 교원(敎院), 선원(禪院)과 더불어 서로 대칭(對稱)한 것이다³⁹⁾.

근현대 불교의 계단(戒壇)은 대은낭오(大隱朗昨) - 초의의순(草衣意恂) - 범해각안(梵海覺岸)으로 이어지는 칠불암 서상수계(瑞祥受戒) 계맥(戒脈)과 청나라 법원사(法源寺) 관단(官壇)의 창도한파(昌濤漢波) - 만화승림(萬下勝林)으로 이어지는 고심여형(古心如馨, 1541~1615)의 계맥이 수수전승(授受傳承)되고 있다. 그러나 해인총림 율원의 개원 이전의 율원에 대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야총림에서 규약에 금강계단(金剛戒壇)을 두고 전계사인 상월의 수계식이 있었으나 율학의 학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봉암사 결사의 대중이었던 자운은 그곳에서 천화율원관 『비구계본』과 『사미율의 요략』을 발간하였고, 이후 통도사에 주석하며 천화율원에서 석암, 일우, 일타, 지관 등을 지도하였다.⁴⁰⁾

해인총림이 개설되어 1967년 첫 동안거를 맞이하였으나 율원은 정식 개원되지 못하였다. 총림 개원 전 여름에 성우, 철우, 성도, 법현, 해봉 등 5인이 해인사 극락전에 상주하며 일타에게 율장을 수학하게 된다. 이때 극락전에는 종정원에 있어 종정 고암이 주석하였고, 염불원이 있

료집』, p.45.

39) 『불광대사전』, p.3801.

40) 1953년 5월 24일 양산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첫 비구계 수계법회를 가졌는데 이때 比丘戒를 重受한 受戒弟子는 昔岩慧秀, 一愚宗壽, 東谷一陀, 伽山智冠 등이다. 이정범, 『부처님 계율대로』, 대각출판부, 2018, p.4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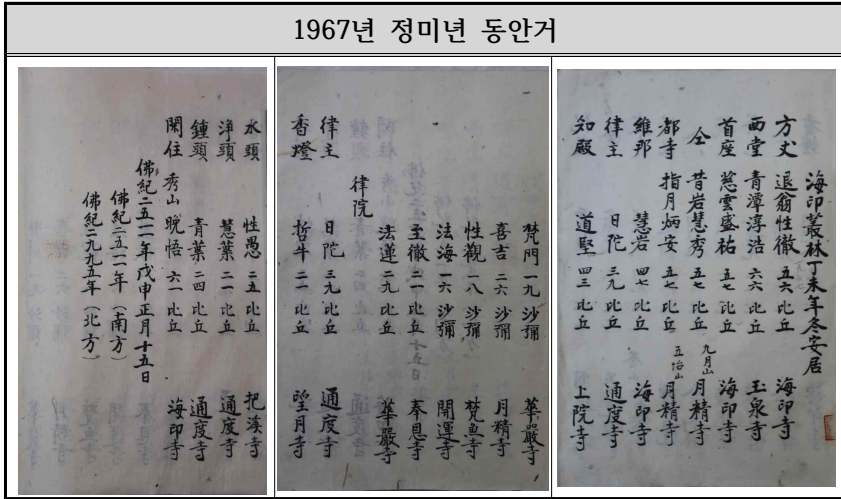
어 수산이 주석하였다. 학인은 있었지만, 교재가 없는 실정이었다.

울장 관련 서적이 없는 실정을 안 성철은 백련암 장서각의 본인 소유의 『속장경』을 대여하여 주어 『범망경』을 학인들이 필사할 수 있게 배려하였고, 자운은 화주를 하여 장경판전에서 『사분율』을 인정하여 학인들이 울장을 연찬할 수 있게 하였다. 고암은 아침 예경에 학인들과 같이 108배를 하며 율행을 숭선수범하였다. 성철은 극락전을 오가며 학인들을 독려하였고, 일타에게 당부를 잊지 않았다. 이들은 1년여간 극락전에서 수학하였고, 10년 후 정식 개원하는 해인율원(海印律院)의 초석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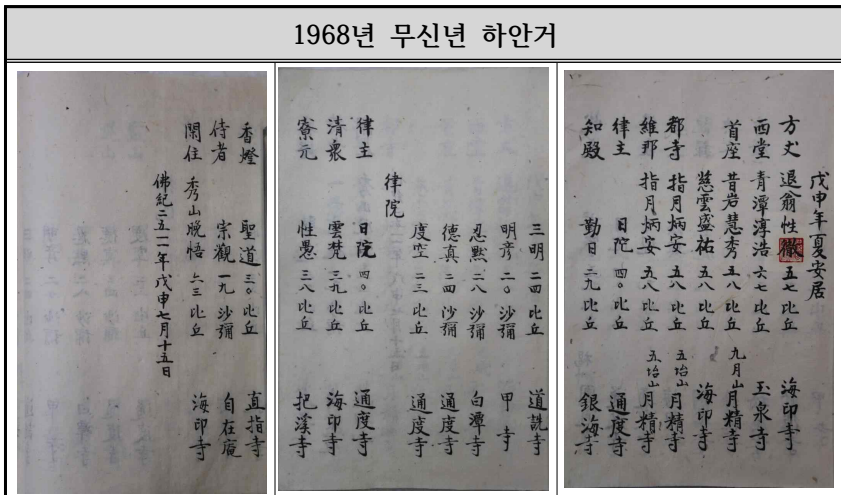
당시 극락전에 상주하였던 고암, 자운, 석암, 혜암, 일타, 도견은 전계 대화상, 갈마아사리, 교수아사리, 칠증사 등의 계단 소임을 보며 종단의 계단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리고 재가 5계 수계와 보살계 수계식을 교구 본사와 전국의 사암에서 봉행하여 계율 중흥이 크게 공헌한 대선사이면서 대울사들이었다. 성우, 철우는 단일계단과 행자교육원에 깊이 관여하여 계단발전에 공헌하게 된다.

<그림 1>의 해인총림 정미년(1967년) 동안거 방함록을 살펴보면 방장에 퇴옹성철, 서당에 청담순호, 수좌에 자운성우, 석암혜수, 도사에 지월병안, 유나에 혜암, 율주에 일타, 지전에 도견 등이 정진하였음을 전한다. 그리고 율원은 율주에 일타, 향등(香燈) 소임에 철우, 수두(水頭)에 성우, 정두(淨頭)에 혜엽, 종두(鐘頭)에 청엽, 한주에 수산만오(秀山晩悟) 등이 동안거에 정진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 율주 소임이 총림소임이면서 또한 율원의 소임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 해인총림 정미년 동안거 방함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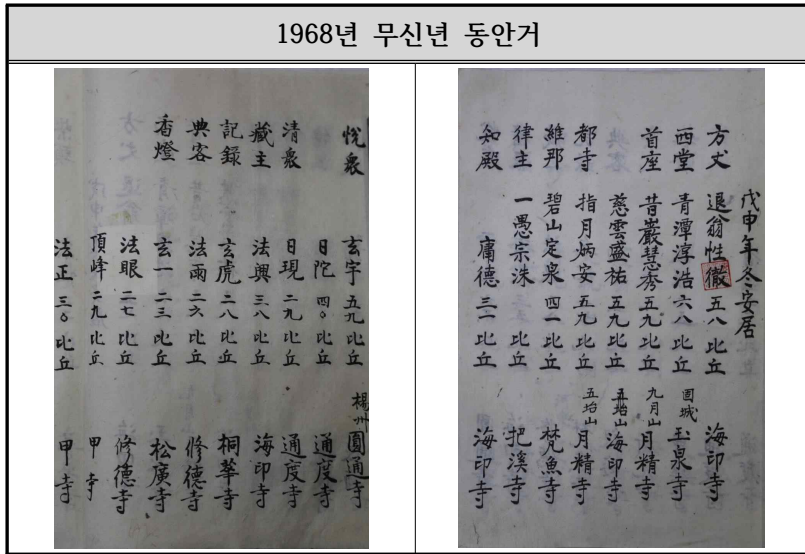
〈그림 2〉 해인총림 무신년 하안거 방함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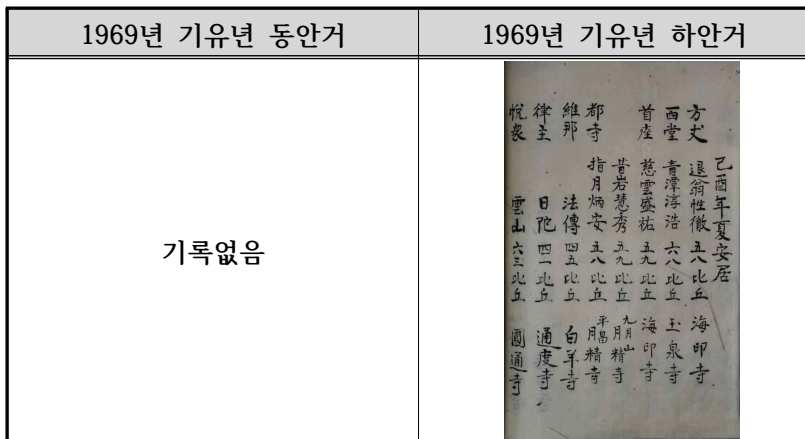
〈그림 3〉 해인총림 무신년(1968년) 동안거 방함록에는 특이할 만한 점이 보인다. 울주에 일우종수가, 열중에 일타가 있으며, 강원 대종의

기록은 있으나 율원 대중은 따로 기록이 없어 당시에 율원에서 수학하는 학인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해인총림 무신년 동안거 방함록



<그림 4> 해인총림 기유년 하안거 동안거 방함록



〈그림 4〉 해인총림 기유년(1969년) 하안거·동안거 방함록에는 하안거 방함록에 일타가 다시 율주로 소임이 정해지나 율원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림 5〉 해인총림 경술년 하안거 동안거 방함록

1970년 경술년 동안거			1970년 경술년 하안거

〈그림 5〉 해인총림 경술년(1970년) 하안거·동안거 방함록을 살펴보면 하안거에는 방장에 퇴옹성철이 동안거에는 고암상언이 기록되었다. 이는 해인사에 큰 변고가 있었음을 기록으로 전하고 있는 것이다. 일타는 계속해서 율주 소임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일타는 동안거에 율주 소임을 보면서 소림원에서 정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 해인총림 신해년(1971년) 하안거·동안거 방함록을 살펴보면 하안거 명단에 율주 소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타는 소림원에서 정진하였는데, 그 해 동안거에 퇴옹성철이 다시 방장에 추대되자, 율주 소임을 다시 보게 된다.

이후 1974년 갑인년 하안거 방함록까지는 기록이 전하는데 1972년 동안거에는 율주 소임과 소림원 선원장 소임을 겸직하는 것으로 기록이 전한다. 그렇지만 1973년 계축년에는 정진대중 명단에는 기록이 없

다. 그 해 동안거에는 다시 율주 소임에 복귀하고 1974년 갑인년 하안거에는 특이하게 율주 소임으로 일타, 지관 2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6> 해인총림 신해년 하안거 동안거 방합록

1971년 신해년 동안거	1971년 신해년 하안거		
<p> 法王 律那 首座 西堂 方丈 悅教 律那 聖雲 映岩 性徹 推背 炳安 聖雲 聖雲 聖雲 菴度 玄坡 菴度 菴度 菴度 松通 海梵 通海 海印 海印 廣度 度寺 印寺 魚寺 魚寺 </p>	<p> 侍者 小林 院 巨海 雲山 日陀 巨陀 巨陀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p>	<p> 禪德 二繩 維那 藏主 書記 映岩 慈雲 達山 炳安 性海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通海 通海 通海 通海 通海 通海 通海 通海 通海 通海 </p>	<p> 會院 都務 財務 教務 住持 法達 大雲 東雲 普光 明振 智對 方丈 古庵 秋山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比丘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海印 </p>

이상의 일타의 율주 소임을 <표 1>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후의 방합록 기록이 전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하나 계속해서 총림 율주의 소임을 역임했을 것으로 유추된다.

<표 1> 일타의 율주 소임 연혁

년도	하안거	동안거	비고
1967년		○	
1968년	○	일우종수	
1969년	○	○	
1970년	○	○	
1971년	×	○	소림원에서 정진
1972년	○	○	소림원 선원장
1973년	×	○	
1974년	○		율주에 일타, 지관

조계종 최초의 율원인 해인율원이 정식으로 개원한 것은 총림이 설립된 10년 후인 1977년 4월 15일이다. 율원이 개원되면서 해인총림은 삼원을 갖춘 최초의 총림의 위상을 구축하게 된다. 입학 자격은 강원 대교과를 졸업한 비구이어야 했고, 수학 기간은 1년이었으며 사분율과 대승계를 수학하였다. 1979년 1월 15일에 8인(41) 첫 졸업생을 시작으로 이후 2019년 2월까지 총 160명의 율학 전공자를 양성하였다.

해인총림 율원은 1985년 3월에 율원장 직제를 신설하고 해인강원 학장을 역임한 종진이 소임을 맡게 된다. 종진은 지관에게서 전통 강맥(講脈)을, 자운의 전계제자 일우종수(一愚宗壽)의 계맥(戒脈)을 이은 불교학과 율학에 정통하여 추천되었다. 율원은 율주 일타, 율원장 종진이 교수하면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율학 수업의 내실을 충실히 기할 수 있게 되었다.⁴²⁾

이와 같이 일타는 해인총림율원 설립의 초석을 다지고, 이를 발판으로 하여 율원을 정식 개원하고 이후 교수양성과 전문적 교육을 위해 종진을 율원장으로 추천하여 건실한 율학인 양성의 도량이 안착하게 배려와 관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본인의 사중 보시 전액을 율원의 운영비로 충당하게 하여 율학인들의 외호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수시로 특강을 하며 학인을 독려하였고, 지족암에 불러 차담을 함께 하며 불조(佛祖)에 대한 신심을 양양하게 하였고, 율학인의 자긍심을 일깨우게 하였다.

그는 평소 연지공양 후 엄지 외 나머지 손가락이 없는 불편한 오른손에 붓자루를 움켜쥐고 독특한 서체로 신심을 고양하는 경구를 적어 탁마하게 하였다. 나아가서는 손수 참담을 주며 대승보살의 자비심을 시현해 보여주기도 하였다. 고금(古今)에 통달한 암기력과 달변으로 좌중을 웃게도 하고, 가슴 몽클하게도 하였다. 변재(辯才)가 무진하여 감

41) 평중, 지근, 혜정, 태영, 시현, 도범, 여연, 동욱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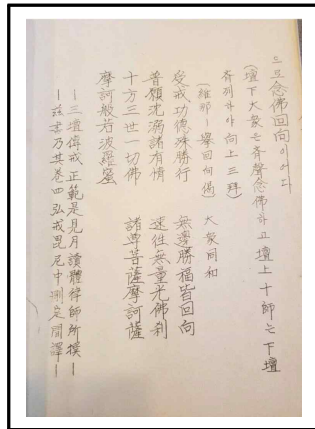
42) 「해인총림 50년 근현대 결사운동과 율원」, 『해인총림개설50주년기념 자료집』, p.40.

화와 교화에 청법자가 귀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IV. 『수계의범』의 번역과 수계의식의 일상화

일타는 1974년 『삼단수계정범』(三壇授戒正範)을 번역하여 『수계의범』(受戒儀範)을 출간하였다. 이는 계단 역사의 큰 공적으로 순한문의 『수계정범』은 난해하여 이 책의 출간 전에는 율학 전공자가 아니면 수계 의식을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이 책의 출간으로 출가 오부중의 수계식이 중단에 보편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재가의 신도 5계와 팔관재계(八關齋戒) 수계식을 전국 사찰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은 일타의 공헌이다.⁴³⁾

<그림 7> 등사판 수계의범



일타는 그가 번역 출간한 『수계의범』의 서문에 편역간행(編譯刊行)하

43) 「해인총림 50년 근현대 결사운동과 율원」, 『해인총림개설50주년기념 자료집』, p.46.

였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이는 남경 보화산(寶華山)에서 남산율(南山律)을 중흥시킨 율종 천화파의 제2조인 견월독체(見月讀體) 율사⁴⁴의 『전계정범(傳戒正範)』을 편역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는 견월독체율사의 소찬(所撰)인 『전계정범』의 권사(卷四)를 모본으로 하여 그 내용 중에서 산정(刪定)하여 간소하게 번역한 것이다. 이는 <그림 7>의 등사판 『수계의범』에 기술되어 있다.

일타는 『수계의범』 서(序)에서 번역의 의도와 기대를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승유역불의 시대를 지나면서 율법이 점차 암울해지고 모범이 되고 본보기가 될 전형이 상실되고, 율문에 대해 누가 저술했다는 것을 듣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을 개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계행이 문란하게 되었고 계상은 암담하게 되었음을 통탄하고 있다. 이 수계의식의 번역에 종단의 원로 대덕들이 편역 간행에 큰 도움을 주었음을 기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수계의범』의 편역을 통해 계단이 올바르게 정립되고, 승단이 징청(澄清)하여, 부처님의 지혜광명이 거듭 빛나고, 불법의 수레바퀴가 항상 굴러지기를 서원하고 있다.

아국我國 불교佛敎 이조이래李朝以來에 율법律法이 점화漸晦하여 전형典型이 전실盡失하고 술작무문述作無聞이라 계행야문란戒行也紊亂하고 계상야암담戒相也暗澹이러니 금반금般 종단석덕宗團碩德 제대노사諸大老師가 승대법륜乘大法輪하사 발기發起 편역간행編譯刊行 수계의범受戒儀範하시니 원이차공덕願以此功德으로 계단戒壇이 정립整立하고 승단僧團이 정결淨潔

44) 견월독체(見月讀體, 1601~1679) : 명말 청초의 승려로 율종 천화파의 제2조이다. 운난성(雲南省) 바이루(白鹿)에서 출생하였다. 당(唐)나라의 도선(道宣)을 교조로 하는 율종(律宗)은 계율을 엄수하는 종파이면서도 쇠퇴하였으며, 명나라 말기 천화파(千華派)의 시조인 적광(寂光)이 난징[南京] 교외의 바오화산(寶華山)에 남산율(南山律)을 중흥시켰다. 견월독체는 적광삼매율사를 스승으로 하고, 바오화산의 율종을 계승 발전시켜 율종 천화파의 제2조가 되었다. 저서에 『비니지지전집(毘尼止持全集)』 16권, 『비니작지속석(毘尼作持續釋)』 15권, 『전계정범(傳戒正範)』 4권 등이 있다.

하며 불일佛日이 재휘再輝하고 법륜法輪이 상전常轉하여지이다.

불멸이천오백십칠년갑인십월십일佛滅二千五百十七年甲寅十月十日
해인총림海印叢林 동곡사문東谷沙門 일타一陀 근지謹識⁴⁵⁾

일타가 서문에서 “아국(我國) 불교(佛敎) 이조이래(李朝以來)에 율법(律法)이 점회(漸晦)하여 전형(典型)이 전실(盡失)”이라 한 것은 율장에 근거한 여범여율한 수계의식이 진행되지 않았던 당시 종단 현실의 뼈아픈 진단이기도 하다. 통합종단 이전부터 구족계 등의 수계 제는 상당한 시대적 고민이었고, 이러한 시대적 고민은 이미 150여 년 전 조선 후기 화엄 종주인 벽파의 저술을 통해 가늠해 볼 수 있다.

조선후기 비구 승단의 구족계 수계문제는 문헌 기록의 미비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백파공선(白坡瓦璇)의 『작법귀감』(作法龜鑑)⁴⁶⁾에는 비구십계(比丘十戒)에 관한 수계의식이 있다. 그 협주에 “비구의 지위에 들어가려고 하면 250가지 구족계를 받아야 하지만, 지금 우리 동방에서는 다만 이 열 가지 계만 받는다. 그렇게 해도 비구가 되는 이유는 이 열 가지 계는 구족계의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⁴⁷⁾라고 나온다. 여기에서 분명히 율장에 근거한 구족계가 아님을 설하고 있고, 그 계목 또한 미륵십선계⁴⁸⁾를 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벽파공선은 화엄과 선, 계율

45) 일타, 『受戒儀範』, 해인사지족암, 1973.

46) 『작법귀감』(作法龜鑑)은 조선 후기 영조~철종 대의 선승인 백파공선(1767~1852)이 불교의 제반 의식에 필요한 의식문을 편집하여 펴낸 종합 의례서이다. 이 책은 1827년(순조27년) 전라도 장서의 백양산 운문암에서 상·하 2책의 목판본으로 간행되었다. ‘작법’은 일반적으로 불가에서 통용되는 의식을 뜻하며 ‘귀감’은 본보기를 뜻하므로 ‘작법귀감’이라는 제목은 말 그대로 불교의 제반 의식에 통용되는 의식문의 모범이, 규범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김두재, 『작법귀감(作法龜鑑)』,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p.7.

47) 김두재, 『작법귀감(作法龜鑑)』, 동국대학교출판부, p.135.

48) 십선계(十善戒) : ①불살생(不殺生) ②불투도(不偷盜) ③불사음(不邪淫) ④불망어(不妄語) ⑤기어(不綺語) ⑥불악구(不惡口) ⑦ 불양설(不兩舌)

에 해박한 종주인데⁴⁹⁾ 비구 250계의 구족계 수계원칙이 이즈음 단절되고 변용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현재 문헌 기록이 없어 조선 후기 모든 지역에서 비구십계를 설하였는가는 논쟁의 여지가 있고, 연구가 요망되는 사안이다.⁵⁰⁾

일타는 구족계 수계와 관련한 여러 문제를 우리말 수계의 범의 편역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였다. 일타의 이러한 수계의 범 편역은 조계종단 뿐만 아니라 교계 안팎에 큰 영향과 지대한 공로로 이어지게 되었다.

기본적 율문에 대한 소양을 가진 여법하고 여율한 비구·비구니이면 누구나 편역본 수계의 범의 식순을 따라 신도들에게 삼귀의·오계 수계식을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게 되었고, 단일계단에서도 여법한 비구·비구니 수계식이 봉행하게 되었다. 또한 행자교육원에서도 사미·사미니 수계의식이 여법하게 봉행할 수 있게 되었다.

V. 포살낭송본의 번역과 포살의 대중화

일타는 1983년 음력 5월, 하안거 결제일에 『비구계포살본』(比丘戒布薩本)과 『보살계포살낭송본』(菩薩戒布薩朗誦本), 『사미율의포살낭송본』(沙彌律儀布薩朗誦本)을 번역 출판하였다. 이는 총림대중의 계율에 대한 이해를 진작하고 일상에 수지 독송할 수 있게 하였다. 현재 해인총림은 음력 흑월(黑月)인 그믐날에 보살계를, 백월(白月)인 보름날에는 비구, 비구니, 사미, 사미니 포살이 시행되고 있다.

⑧ 불탐욕(不貪欲) ⑨ 부진에(不瞋恚) ⑩ 불사견(不邪見)

49) 추사 김정희(金正喜)가 1858년(철종 9년)에 글을 짓고 글씨를 쓴 백과의 비문이 선운사 성보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액은 화엄종주백과대율사대기대용지비(華嚴宗主白坡大律師大機大用之碑)이다.

50) 줄고, 「해인총림 50년 근현대 결사운동과 율원」, 『해인총림개설 50주년기념 자료집』, p.28.

여기, 범망경보살계포살낭송본法網經菩薩戒布薩朗頌本은 해인사총림海印寺叢林에서 이십여년二十餘年을 포살법회布薩法會에 낭송朗誦하던 보살계本菩薩戒本 한역漢譯을 거듭 간추려 번역翻譯해 본 것이다. 원문原文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거듭되는 문장文章은 산제削除하고 시대적時代的인 어휘語彙를 감안堪案하되, 낭송朗誦의 음율音律에 편便하도록 하지는 뜻을 가지고, 막상 착수着手하고 보니, 어려워 어색語塞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줄 알지만, 다음에 더 좋은 낭송本朗誦本이 나오기를 바라고 판版에 올렸다. 원願컨데, 이 법공양法供養이 공덕功德이 되어, 전국사찰全國寺刹에서 흑백양월黑白兩月の 포살법회布薩法會가 성행盛行된다면, 이것이 바로 불일증휘佛日增輝 법륜상전法輪相轉이 아니겠는가.

불멸이천오백이십칠년不滅 二千五百二十七年 하안거夏安居 결제일結制日
동곡사문東谷沙門 일타一陀 誌誌⁵¹⁾

일타는 1961년 동안거 소림선원(해인사)에서 첫 보살계 포살을 거행하였는데, 포살에 참여한 선원 대중들이 일타의 청아한 낭송음과 고구정녕한 계문에 감동과 환희심이 일어 산내에 두루 알려지게 되었다. 두 번째 포살일부터는 선원에서의 포살에 고무된 강원외의 학인 대중들과 그 소식을 접한 산내 암자 대중이 환희심을 내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포살하게 되었다. 이는 한국 불교사에서 보기가 드문 일이며,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포살에 함께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된다.

자운과 일타가 정립한 포살 시행은 오늘날에도 그 명맥이 끊이지 않고 전승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포살의 시행은 송광사와 통도사, 선우도량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향후 종단의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제정의 단초로 이어지게 된다. 일타의 범망경보살계 포살 낭송본의 본격적인 대중화는 일타가 입적하고 난 이후 도우(道友)인 지관이 총무원장에 당선되면서 전국의 본사와 사암에서 종법에 의해 본격적으로

51) 일타, 『보살계포살낭송본(菩薩戒布薩朗誦本)』, 해인총림출판, 1983.

낭송 법회를 가지게 되어 그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지관은 제32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수행종풍 진작과 승가의 위의(威儀)의 회복, 화쟁(和諍)과 상생(相生)의 대중공의를 여법하게 이행하기 위한 여망으로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을 제정·시행하였다. 이 법은 2008년 3월 20일 제176차 중앙총회에서 제정하고 4월 7일 공포되어 하안거 결계일부터 시행하였다. 결계포살은 화합 승가(僧伽)의 기본조건인 구성원의 한계(限界)를 정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결계(結界)와 서로 합의 약속한 학처(學處)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포살(布薩)을 말한다. 사분을 안거건도에 상세히 전하여 오고 있는데, 이 법의 시행은 율장정신의 구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⁵²⁾

VI. 결론

일타는 한국불교의 계율의 옹호자이며, 홍천(弘闡)의 실천자였다. 친가와 외가를 합쳐 일가족 41명이 출가의 법연을 맺은 신심 깊은 집안의 아들로 출가하여, 통도사의 전계사 고경법전 율사를 은사로 득도하고, 또한 일찍이 총명하고 영민한 기질로 삼장을 폭넓게 섭렵하였고, 자비로운 천성과 맑고 청량한 범음성으로 오탁과 미진에 번민하는 이들에게 언하(言下)에 교화하는 부루나의 변재를 시현해 보였다.

그는 20대 젊은 시절 오대산과 태백산에서 생식과 오후불식, 장좌불와와 대용맹정진의 두타행으로 칠통을 타파하였다. 그때 연지연향의 대서 원력으로 사홍서원을 성취하고, 관음의 자비행과 보현의 실천행을 손수 보였다.

암울했던 한국불교에 서광을 비추고, 그 전도(前途)에 계문(戒文)의

52) 「해인총림 50년 근현대 결사운동과 율원」, 『해인총림개설50주년기념 자료집』, p.47.

생소함을 흠어 버리고, 위법망구의 결의로 통합종단의 이론가로 중앙종회에서 활발발한 활동가로 활약하며 종단안정에 기여하였다. 나아가서 계단법을 새롭게 정립하여 이부승 수계의 율장 대의를 실현하였다.

또한 일타는 난해하고 접근하기 힘든 『수계의범』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편역 출판하여 전국의 모든 사찰에서 수계의식이 편만(遍滿)하게 하여, 수계의식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여법여율 비구·비구니이면 누구나 그 의식을 봉행할 수 있게 하여, 수계의식의 보편화를 이룩하였다. 우리말 『수계의범』은 율장에 근거한 계단과 제도의 복구를 가능케 하였다.

일타의 계율 선양 활동은 계본의 번역 보급으로 나타났다. 『범망경보살계포살낭송본』, 『비구계본』, 『비구니계본』, 『사미사미니계본』을 우리말로 읽기 좋게 번역하여 지율과 지계의 일상화가 가능하게 하였다. 특히 일타의 『범망경보살계포살낭송본』은 대승보살의 계율관과 실천론을 승속(僧俗)을 막론하고 일반대중이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게 하였다. 이 낭송본은 대승보살도 실천의 큰 나침반 역할을 하였고, 또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혼탁한 세상에 지남이 되게 하였다.

일타는 해인총림의 개설과 안정적 정착에 헌신하였고, 무엇보다 총림과 율원의 율주와 종단의 전계대화상의 중임을 보며 율학인 양성에 진력한 공로는 지대하다. 그리고 일타는 총림과 율원, 계단, 중앙종회에서 활약하였는데, 이는 종단의 3대 지표인 도제양성, 포교, 역경의 불교정화불사를 완수하려는데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일타의 일생 행리처를 고찰하며, 그가 성취하고자 했던 서원력은 지계의 복원을 통한 종단의 융성과 불법의 중흥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동곡일타에 관한 연구는 2016년 동곡문도회와 사단법인 한국 불교학회가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이라는 주제로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를 개최한 것에서 본격화되었다. 그 행사에서 「동곡일타의 생애와 수행」, 「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동곡일타의 위상」, 「동곡

당 일타 큰스님 교화행과 그 의의」, 「일타의 지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 「동곡일타대종사의 선사상」 등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자료의 한계 속에서 상당한 연구 노력이 이루어진 것은 고무적이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언한다면, 그간의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더하여 동곡의 저술과 범어집, 법문자료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하여 그의 계율관에 대한 다면적이고 심층적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원전 및 번역본>

- 김두재 옮김, 『작법귀감』, 동국대학교출판부, 2010.
사토우 미즈오, 김호성 옮김, 『초기 불교 교단과 계율』, 민족사, 1991.
동양덕회외, 최법혜 역주, 『勅修百丈清規 譯註』,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8.
자각종색, 최법혜 역주, 『고려관 선원청규 역주』,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1.

<단행본>

- 가산지관, 『南北傳六部律藏研究』, 대각사출판부, 1976.
_____, 『海印寺誌』, 가산불교문화연구원, 1992.
_____, 『한국불교계율전통』, 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5.
김광식, 『한국 현대불교사 연구』, 불교시대사, 2006.
_____,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도피안사, 2007.
_____, 『한국 현대선의 지성사 탐구』, 도피안사, 2010.
_____, 『자운대율사』, 불광출판사, 2017.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편, 『禪院總覽』, 불교시대사, 2000.
_____, 『조계종 총림의 역사와 문화』, 조계종출판사, 2009.
조계종교육원, 『습의교안』, 조계종출판사, 2011.
조계종 중앙종회, 『제1대 중앙종회회의록』, 1999.
_____, 『제2대 중앙종회회의록』, 2000.
_____, 『제3대 중앙종회회의록』, 2000.
_____, 『제4·5·6대 중앙종회회의록』, 2001.
_____, 『제7대 중앙종회회의록』, 2002.
_____, 『중법집』, 2016.
동곡문도회, 『일타대종사범어집』, 민족사, 2002.
만해사상실천선양회, 「불교와 계율」, 『불교평론』 15, 만해사상실천선양회, 2013.
불교교단사연구소편, 『승가화합과 조계종의 미래』, 혜민기획, 2014.

- (사)한국불교학회, 『동아시아의 선, 그리고 동곡 일타스님』, 추계전국불교학술대회, 2016.
- 신 공, 『淸規와 禪院文化』, 부다가야, 2008.
- 윤창화, 『당송시대 선종사원 생활과 철학』, 민족사, 2017.
- 一然學研究院編, 『日陀和尚水月銘』, 불교시대사, 2000.
- 일타감수, 범흥편역, 『戒律綱要』, 1994.
- 일 타, 『沙彌律儀』, 삼영불교서점, 1968.
- _____, 『受戒儀範』, 해인사지족암, 1973.
- _____, 『비구계포살본』(比丘戒布薩本), 해인총림울원, 1983.
- _____, 『보살계포살낭송본』(菩薩戒布薩朗誦本), 해인총림울원, 1983.
- _____, 『사미율의포살낭송본』(沙彌律儀布薩朗誦本), 해인총림울원, 1983.
- _____, 『범망경보살계』, 다라니, 1992.
- _____, 『시작하는 마음』, 효림, 1993.
- _____, 『시작도 끝도없는 마음』, 효림, 1994.
- _____,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효림, 1994.
- _____,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효림, 1995.
- 전국선원수좌회, 『대한불교조계종 선원청규』, 조계종출판사, 2010

<논문>

- 조계종 총무원, 『제39회 단일계단 구족계수계살림 자료집』, 2019.
- 자운대율사 탄신일백주년기념사업회, 『자운대율사 탄신일백주년기념 학술세미나자료집』, 2013.
- 조계종교육원 불학연구소, 『울장정신의 현실적 진작과 종단적 적용』, 2011.
- 울장연구회, 『조계종의 계단 및 율맥의 전수』, 『한국불교계단사』, 토방, 2016.
- 김광식, 「조계종단 율원의 역사와 성격」, 『불교학보』 70, 2015.
- _____, 「일타의 지성적 노선과 조계종단의 좌표」, 『불교연구』 46, 2017.
- 염중섭, 「한국불교의 계율적인 특징과 현대 조계종의 계율 전통 - 자운과 일타를 중심으로」, 『종교문화연구』 30, 2018.
- 이자랑, 「조계종단 계단의 역사 및 성격」, 『불교연구』 42, 2015.
- 최범혜, 「자운대율사의 화합승가와 역경불사의 원행」, 『대각사상』 26집, 2016.

Abstract

Ilta Precepts of Commandment Promotion Activities

Chung, Seo-bong(Seo-bong)
(Director of the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is study is a treatise that summarizes the activities of Donggokdang Ilta(동곡당 일타), who is widely known as a preceptor in Korean modern Buddhist history, to promote precepts. Ilta's achievements, significance, and personality as a preceptor are diverse, but have not been academically summarized so far. Recognizing this point, the author divided Ilta's precepts promotion activities into several themes and organized them.

The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activities as a member of the Jogye Order were organized after the unified order of the Jogye Order(1962). As a member of the secular assembly, he led the enactment of the law of platform Act and the decision on the color of the monk's house. Second, the activities and status of Haein Chongrim Yulwon were summarized. He started Haein Yulwon and trained younger masters while serving as its head(율주). Third, by translating and distributing books on various disciplines, including 『Sugye Uibeom』, the ritual of ordination of religious orders was made common. Fourth, the popularization of Posal was promoted by translating and distributing the Posal recitation. He raised the consciousness of penitence and introspection of the monk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hich summarizes the contents, will serve as a reference for research on Ilta, Haeinchongrim, Yulwon, and Sugye Ritual.

Key words

Ilta, Yulwon, Haeinsa, law of platform, Consecration ceremony, Yulsa

논문투고일 : '23. 04. 07. 심사완료일 : '23. 05. 24. 게재확정일 : '23. 05. 24.